

경찰·청와대, 故 백남기 수술 과정도 개입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 발표
 서울대병원장, 靑 연락받고
 백선하 교수에 조치 주문
 경찰 '빨간우의 가격설' 악용
 무리한 부검 영상 집행 시도



21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보성농민회 고(故) 백남기씨 사건에 경찰과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해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로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

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다만, 청와대나 경찰이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백 교수를 특정해서 수술을 집도하도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경 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해 이튿날 오전 0시 10분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데에는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반기 위해 '빨간우의' 가격설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백 농민이 2016년 9월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고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상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무리하게 영상 집행을 시도했

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은 의문을 낳는다.

특히 경찰은 백 농민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살수차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없이 살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에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살수 지휘 체계에서 허모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무전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은처자 의혹'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퇴진

은처자 의혹 등으로 중단 안팎의 사퇴 압력을 받았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사진) 스님이 퇴진했다.

설정 스님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소회를 밝힌 뒤 수속사를 떠났다. 설정 스님은 지난해 11월 1일 임기 4년의 제3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학력위조 의혹, 부동산 보유 의혹, 은처자 의혹 등을 받았으며 점차 논란이 확산됐다.

설정 스님의 퇴진은 21일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 여부를 결정할 원로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그동안 조계종은 설정 스님의 퇴진 여부, 사퇴 시점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기본적인 원칙은 중현종법 질서에 따른 중단의 안정적 화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설정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은 현 중앙총회 등에도 책임이 있다며 근본적인 중단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알바 채용 10곳 중 8곳 근로기준법 어겨

광주노동청, 기초고용질서 위반 115곳 적발

광주에서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등 이른바 알바를 채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 사업장 138곳을 점검해 이 중 115곳에서 기초고용질서를 어긴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카페·호프집·피시방 등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이들 사업장에서 올해 6월 1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초고용질서 실태를 점검했다.

적발 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 55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40곳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23곳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곳도 11곳이나 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정당한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꾸준한 근로감독과 제도적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7 달뜨기 16:31
 해질 19:13 달지기 01:58

태풍전야

무더위 지속되는 가운데 남해안 비바람 불겠다

| | | | | | | | | | |
|----|---------|-------|-----|---------|-------|----|---|----|---|
| 광주 | 흐림 | 26/35 | 보성 | 흐리고 한때비 | 24/32 | 인천 | ☀ | 강릉 | ☀ |
| 목포 | 흐림 | 26/33 | 순천 | 흐림 | 27/34 | 대전 | ☀ | 충청 | ☀ |
| 여수 | 흐림 | 27/32 | 영광 | 흐림 | 24/34 | 전주 | ☀ | 대구 | ☀ |
| 나주 | 흐림 | 24/35 | 진도 | 흐리고 한때비 | 25/33 | 부산 | ☀ | 제주 | ☀ |
| 완도 | 흐리고 한때비 | 26/32 | 전주 | 구름 많음 | 25/35 | | | | |
| 구례 | 흐림 | 23/34 | 군산 | 구름 많음 | 25/33 | | | | |
| 강진 | 흐리고 한때비 | 25/32 | 남원 | 구름 많음 | 24/34 | | | | |
| 해남 | 흐리고 한때비 | 25/33 | 흑산도 | 흐림 | 26/31 | | | | |
| 장성 | 흐림 | 23/34 | | | |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 서해 | 앞바다 | 북동~동 | 1.5~3.0 | 북동~동 | 2.0~4.0 |
| 남부 | 먼바다 | 북동~동 | 2.0~4.0 | 북동~동 | 3.0~5.0 |
| 남해 | 앞바다 | 북동~동 | 2.0~4.0 | 북동~동 | 3.0~5.0 |
| | 먼바다(동) | 북동~동 | 2.0~4.0 | 북동~동 | 3.0~6.0 |
| 서부 | 먼바다(서) | 북동~동 | 2.0~4.0 | 북동~동 | 3.0~6.0 |

◇ 생활지수

| | |
|----|---|
| 경고 | ☀ |
| 높음 | ☀ |
| 중음 | ☀ |

◇ 주간 날씨

| 23(목) | 24(금) | 25(토) | 26(일) | 27(월) | 28(화) | 29(수) |
|-------|-------|-------|-------|-------|-------|-------|
| ☁ | ☁ | ☁ | ☁ | ☁ | ☁ | ☀ |
| 25/30 | 25/33 | 24/33 | 25/32 | 25/32 | 25/32 | 25/33 |

오늘 광양 공립예술고 기공식...2020년 개교

전남지역 예술인재를 길러낼 될 공립 예술고등학교가 광양에 건립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조감도)' 기공식이 22일 오후 4시 30분 광양시 마동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창의예술고는 음악·미술과 9개 학급, 180명을 정원인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입학 정원은 음악과 2학급 40명, 미술과 1학급 20명이며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음악과는 성악·기악·작곡, 미술과는 서양화·한국화·디자인·공예 등 전공을 운영한다. 부지 3만56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교사(校舍), 부대시설, 타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을 갖춘다.

창의예술고 설립은 전남 동부권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2015년부터 추진됐다. 광양시는 부지 제공, 시설·운영비, 강사 확보, 운영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 사례를 남겼다. 광양시는 광양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과 공연장을 재학생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공립 예술 특성화고가 문을 열면 예상 전남의 맥과 전통을 계승할 예술 인재의 요람으로서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열 | 모집단위 | 수시 | 정시 |
|----|---------------------------------------|----|----|
| 인문 | 신 학 과 | 30 | 16 |
| | 한국어교육학과 | 3 | 1 |
| 사범 | 유아교육과 | 8 | 2 |
| 사회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복교육상담학 전공) | 31 | 3 |
| 예능 |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23 | 7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대 학 원 | 과 정 | 모 집 학 과 | 모집인원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65 |
| | | 신학과(Ph.D.) | 6 |
| | | 목회학과(D.Min.) | 2 |
| | | 유아교육학과(D.Ed.) | 5 |
| | | 사회복지학과(D.S.W.) | 5 |
| | | 상담심리치료학과(D.C.S.) | 5 |
| | | 코칭심리학과(D.Psy.) | 5 |
| |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15 |
| |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10 |
| |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15 |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10 | |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 20 |
| | | 평생교육학과(M.Ed.) | 10 |
| 국제대학원 | 석사 | 한국어교육학과(M.Ed.) | 20 |
| | | 음악학과(M.A.) | 6 |
| 음악대학원 | 석사 | 실용음악학과(M.A.) | 6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